

가장 큰 추상작품... 33회 치열한 입찰

김환기 화백 작품 '우주' 132억 낙찰

신안 출신 한국 추상미술 선구자
홍콩 경매서 외국인 컬렉터에 낙찰
후원자 소장... 50여년만에 첫 경매
한국 작품 '톱 10' 중 9개 차지
여수 예술마루 '산월' 등 대표작 전시중

신안 출신 수화(樹畵) 김환기(1913~1974) 화백의 작품 '우주'가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약 131억8750만원(8800만 홍콩달러)에 낙찰돼 한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다.

김환기의 작품은 이미 수차례 한국미술품 최고가를 자체 경신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점해왔다. 직전 최고가는 김환기가 1972년 그린 붉은색 전면점화 '3-II-72 #220'로 지난해 5월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기록한 낙찰가 85억3000만원(6200만 홍콩달러)이다. 이번 경매 결과 국내 미술품 판매가 '톱 10' 중 9위 이중섭 '소'(47억원)를 제외하고 모두 김환기 작품으로 채워지게 됐다.

미술계에서는 김환기 작품이 130억대를 기록하면서 한국 미술의 세계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김환기를 비롯한 다른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관심도 이어져 환기미술관 홈페이지는 24일 현재 트래픽 초과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33차례 입찰 끝에 낙찰된 '우주'

23일 홍콩컨벤션전시센터(HKCEC)에서 열린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 등장한 '우주' (Universe 5-IV-71 #200-254×254cm)는 약 60억원으로 출발했다. 10여분간 협정과 전화 경합이 33번이나 치열하게 이어졌고 작품은 예상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낙찰됐다.

수수료를 뺀 낙찰가 기준으로 한국 미술품이 경매에서 100억원 넘는 가격이 팔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리스티코리아는 구매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은 약 153억4천930만원(1억195만5000 홍콩달러)이라고 밝혔다. 낙찰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크리스티 뉴욕을 통해 경매에 참여한 외국 컬렉터가 '우주'의 새 주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1971년 작 '우주'는 별을 상징하는 푸른 점들이 화폭을 가득 채우고 두 원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작품으로 작가의 작품 세계가 완성된 뉴욕 시대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세로 254cm, 가로 254cm으로 그의 작품 중 가장 규모가 큰 '우주'는 그가 작고 3년 전 완성한 작품으로 김환기의 후원자이자 친구였던 김태백 박사가 작가에게 직접 사들여 소장해왔다. 지금까지 서울 환기미술관에서 대외에 여러차례 전시됐으며, 경매에는 이번이 처음 나왔다.

이번 경매에 대해 예블린 린 크리스티 홍콩 아시아 20세기&동시대 미술 부문 부회장은 "앞으로 '우주'는 경매 시장에 등장할 때마다 늘 새로운 기록을 남길 것이다. 이 작품만이 김환기 기록을 다시 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콩 홍콩컨벤션전시센터(HKCEC) 그랜드홀에 전시된 김환기 1971년작 '우주' (Universe 5-IV-71 #200). 이 작품은 23일 열린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132억원에 낙찰됐다.



한국 추상미술 선구자 김환기(1913~1974)

◇지금, 김환기를 만날 수 있는 곳

환기재단 40주년 기념전 'Whanki in New York-김환기 일기를 통해 본 작가의 삶과 예술'이 서울 부암동 환기미술관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린다. 작가가 뉴욕 시절(1963~1974)에 남긴 일기 등 기록 등을 통해 그의 삶과 예술가적 고뇌, 작품 세계 등을 만날 수 있으며 관련 작품과 함께 그의 뉴욕 스튜디오도 재현됐다. 환기재단은 김환기 별세 5년 뒤 뉴욕에서 아내 김향안 여사가 설립했다.

현재 여수 예술마루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근현대미술 걸작전' (12월22일까지)에는 김환기의 대표작 '산월' 등이 전시돼 있으며 26일 오후 7시30분 예술마루에서 이태호 명지대 명예 교수의 '한국 미술사의 절정 - 백자달항아리에서 김환기 회화까지' 강연도 열린다.

이태호 교수는 "서양의 추상미술을 기본으로 하지만 거기에 한국적인 이미지와 색채 등이 어우러진 점이 한국인의 정서와 서양인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같

근현대 작가 김환기 작품 한국미술품 최고가 경신

순위	작품명	가격	연도
1위	'우주' (Universe 5-IV-71 #200)	131억 8,750만원	2019년 11월 23일
2위	김환기 3-II-72 #220 (1972)	85억 3천만원	(2018년 5월)
3위	김환기 Untitled (1971)	72억	(2019년 5월)
4위	김환기 고요 5-IV-73 #310 (1973)	65억 5천만원	(2017년 4월)
5위	김환기 12-V-70 #172 (1970)	63억 2,600만	(2016년 11월)
6위	김환기 무제 27-VI-72 #228 (1972)	54억	(2016년 6월)
7위	김환기 무제 (1970)	48억 6,750만	(2016년 4월)
8위	김환기 19-VI-71 #209 (1971)	47억 2,100만	(2015년 10월)
9위	이중섭 소	47억	(2018년 3월)
10위	김환기 무제 3-V-71 #203 (1971)	45억 6천만	(2016년 5월)

*낙찰시점 원물 기준 구매 수수료 불포함



김환기 (1913~1974년)

한복 입은 단발머리 여인 '숲.을.견.다'

박성희 개인전, 12월 6일까지 국윤미술관

시인 백석과 당나귀와 나타샤, 그리고 숲과 산책.

서양화가 박성희 작가가 이번 개인전을 준비하며 마음에 떠올렸던 것들이다. 집에서 가까운 숲을 매일 산책하며 그곳에서 매화, 동백, 백일홍 등 계절별로 피어나는 꽃과 나무를 만났고 도심에서 보기 드문 호수와 나지막한 동산에 올라 마음의 위안을 받기도 했다. 숲속을 거닐며 백석을 생각했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했다.

박성희 작가 개인전이 오는 12월 6일까지 광주시 동구 윤림동 국윤미술관에서 열린다. '숲.을.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숲에서 만났고 느꼈던 감성들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놓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건 한복을 갖춰입은 단발머리 여인이다. 그녀는 숲속의 동물과 꽃과 나무와 함께 있기도 하고, 가방을 든 채 어딘가로 떠나기도 한다. 구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올 것만 같은 해금도 언제나 그녀와 함께다. 화사한 색



'소리숲'

감으로 풀어진 화폭은 숲속의 풍경을 잘 보여주며 한국화의 느낌도 자아낸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박 작가는 지금까지 '밤이 피다' 등을 주제로 5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싱가포르 등 다양한 아트페어와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광주-전남여성작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3D프린팅과 수공예의 관계는?

신지영 개인전, 12월 1일까지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디지털 시대 3D프린팅과 수공예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3D프린팅은 수공예가 주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대신할 수 있을까?

생활의 모든 것을 3D프린터로 제작해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3D프린터 대중화 시대가 도래한다면 수공예의 가치는 지금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자의 기능성과 조형성의 조화를 위해 디자인과 작품 간 경계를 고민해왔던 신지영 작가가 '누비+3D프린팅+도자展'을 연다.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2019문화예술펀딩 만세만세 만(萬)만(滿)계 (만만계) 일한다'.

"3D프린터가 주는 시간의 단축과 정교함이 수공예의 아름다움을 대신할 수 있을 까"라는 질문에 신지영 작가는 이렇게 답한다. "작가가 사용할 수 있는 정밀한 도구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기존에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상상이 가능했지만 3D프린터를 활용해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다.

작가는 2017 광주시 관광기념품 대상작 '복주머니 소이캔들'을 작업할 당시 전통색칠 누빔의 바늘땀과 문양의 디테일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3D프린팅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번에 선보이는 '색칠귀낭'



'색칠귀낭'

'등'은 향기를 저장해 간직하는 향주머니 '향낭'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흙으로 빚은 도자기 오일램프로,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지은 것처럼 오색실이 선명하다. 3D프린팅 접합기법으로 탄생했지만 마치 손으로 바느질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오색실 무늬와 유약으로 완성한 은은한 색감 때문이다. 이 같은 효과는 도자작품이 기능성과 조형성의 조화를 위해 고민한 데서 연유한 결과다.

한편 신작가는 전남도립대 도예과도과를 졸업했으며 전남대 미술학과 공예(도자) 석사 졸업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했다. 2016년부터 빛고을공예창작촌 입주작가로 도예공방 라벨을 운영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6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9년 12월 송년모임

신양파크호텔 감사이벤트

2020년 1월 신년모임

12월 송년 및 1월 신년모임 감사이벤트

(연회행사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10% 할인
- 음료 · 주류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 제공
- 빔프로젝트 무료 제공

※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회원모집

(월 2회 휴무/매월 2, 4주 수요일)

구분	월	6개월	1년
개인	₩ 300,000	₩ 1,200,000 (월 ₩200,000)	₩ 2,000,000 (월 ₩166,670)

특 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 객실 이용시 50% 할인

문의 및 예약 ☎ **062)221-4101~3, 228-8000**